

오순절 후 열아홉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9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10월 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1 번 (시편 9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디도서(Titus)3:3-8	조문희 집사
찬 양 Anthem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대
설 교 Sermon	“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는 완전합니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428 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나” (통일 48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보다는,

끝없는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았고,

허망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자리잡은 죄악된 욕망과, 헛된 바램과,

교만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딤후 6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개역개정 딤후3:5)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NIV Titus 3: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8 (주일)	10/9 (월)	10/10 (화)	10/11 (수)	10/12 (목)	10/13 (금)	10/14 (토)
	왕상11	왕상12	왕상13	왕상14	왕상15	왕상16	왕상17
본문	빌2 겔41 시92,93	빌3 겔42 시94	빌4 겔43 시95,96	골1 겔44 시97,98	골2 겔45 시99-101	골3 겔46 시102	골4 겔47 시10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0/11수 오후7:30)	“영성의 길”⑧-“순례자 공동체의 영상”(히12:22-24)
토요 새벽기도회 (10/14토 오전6:30)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시119:113-120)

지난 주일(10/1)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딤후 4:10)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투옥되었다가 잠시 석방되었을 때, 그는 (과거) 자신의 선교 여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기에, (일명) 목회서신서라고 부르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단지) “맡겨진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보다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완수)하는 사람”이며,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 정의(Justifiaiton)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 성화(Sanctification)를 거쳐, 영화(Glorification)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소명의 길을 끝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하고(딤후 4:5-6), 2)둘째,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하며 (딤후 4:7-8), 3)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딤후 4:10)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그 소망을 두느냐? 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